

보도	2024.11.7.(목) 11:00	배포	2024.11.6.(수)		
담당부서	금융안정지원국 상생금융팀	책임자	국 장	김충진	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	유상범	(02-3145-8400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

I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4.11.7.(목)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, 금융권 및 중소기업 관계자와 함께 **현장 간담회**를 실시하였음
- 이복현 원장은 중소기업금융의 방향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설명하는 한편
-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**꼼꼼히 검토**하고 관계기관과 **적극 논의**할 계획임을 밝혔음

※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요

- 일 시 : '24.11.7.(목) 11:00~13:00
- 장 소 : 중소기업중앙회(서울 영등포구 소재)
- 참석자 :
 - (금감원) 금융감독원장, 은행 담당 부원장보 등
 - (금융권) 국민은행장, 기업은행장
 - (중소기업) 중소기업중앙회장,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, 중소기업단체 대표

II 금융감독원장 모두 발언 주요 내용

-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 및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음
 -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*이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
 - * 부동산 금융 : ('15말) 1,443조원 → ('24.6말) 2,882조원 (출처 : 한국은행)
 -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*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음
 - * 은행 중기대출 중 담보·보증 비중(%) : ('15말) 66.7 → ('22말) 79.2 → ('24.9말) 80.7
 -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
 -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음
-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음
 -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
 - 상장 중소기업인들도 주주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

□ 한편 금융당국은 **어려운 경제상황**에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

-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**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**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
- **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**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* 등 **대환대출 지원상품**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음

* 폐업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 → 가게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성실상환시 금리감면 등 제공

□ 끝으로 이복현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**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**하고 **높은 곳으로 도약**하길 기원하며

- 오늘 간담회에서 **제기되는 의견**에 대해서도 **꼼꼼히 검토**하고 관계기관과 **적극 논의**하겠다고 밝혔음

※ 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발언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